

# 북한이탈주민 일상연구와 이주연구 패러다임 신고찰\*

김 성 경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 목 차 >

|   |   |
|---|---|
| I. 들어가며   | V. 북한이탈가족의 정착 경험과 존재론적<br>안정감(Ontological Security)의 구축 |
| II. 이주연구 패러다임의 비판적 접근   | VI. 마치며   |
| III. 이주연구 패러다임의 지역적 맥락화 :<br>북한이탈주민의 사례                       | 참고문헌  |
| IV. 북한이탈주민 일상연구 :<br>사회구성론(Structuration Theory)과 인류학적<br>방법론 | Abstract  |

Key words(중심용어): 북한이탈주민(North Korean Refugee), 사회구성론(Structuration Theory), 존재론적  
안정감(Ontological Security), 인류학적 방법론(Ethnography), 일상(Everyday Life)

## 국 문 요 약

최근 이주연구의 경향은 이주 원인과 과정, 그리고 정착 과정내의 다수의 인종, 민족, 문화, 경제, 정치 등의 복잡한 상호 작용의 역학을 포착해내는 것이다. 본 논문은 서구 학계 내 이주 연구의 비판적 논의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틀을 제시하고, 이들의 유다 른 이주와 정착의 경험을 일상이라는 층위에서 적절히 분석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의 이주/정착의 과정과 일상의 경험을 행위수행(Agency)과 구조(Structure)의 관계를 이론화한 사회구성론(Structuration Theory)과 인류학적 방법으로 연구할 것을 제안 한다. 사회구성론의 틀에서 이주 문제를 접근할 경우 북한이탈주민 연구의 주류를 이루었던 심 리학적 접근이나 현상 설명 수준에 머물렀던 기존 연구의 한계에서 벗어나 행위수행 과정에서 북한(혹은 남한)의 사회구조와 문화 자원들이 행위자의 이주를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게 하였는 지 설명할 수 있고, 이주-정착과정의 경험 내의 행위수행과 구조의 관계, 마지막으로 이들의 행

\* 이 논문은 2007년(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7-361-AM0005).

위가 남한 사회구조와 어떠한 방식으로 맞물려 구조화되어 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방법론적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에 인류학적 방법으로 접근하고, 심층면접과 참여관찰을 통해 이들 삶 속의 행위수행과 사회구조의 작동과 영향을 심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 I. 들어가며

이주연구의 기본 목적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행위에 대한 파악이다. 이동(mobility)은 적어도 2개 이상의 지역의 문화, 정치, 경제, 언어 등이 복잡하게 얽히는 과정인데, 과거의 이주연구가 단순히 이주의 원인과 이주민의 정착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최근의 이주연구는 이주의 원인, 과정, 그리고 정착 과정에서의 인종, 민족, 문화, 경제, 정치의 복잡한 상호 작용의 역학을 포착해내는 것으로 그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비교적 오래된 이주연구의 역사를 갖고 있는 서구의 학계와는 달리 한국 이주연구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한국 이주연구는 아시아 각국에서의 결혼이주와 경제이주가 본격화된 1990년대 후반 이후 비로소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결혼이주와 경제이주의 경우 세계화가 작동되는 영역으로 서구의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맥락하에서 포착될 수 있는 반면, 한국으로 이주해 온 북한이탈주민의 사례는 한국이라는 로컬의 역사적·지정학적 특수성을 함축한 이주경험이라는 점에서 좀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즉, 서구와는 사뭇 다른 냉전 시대의 경험과 냉전과 탈냉전이 교차하고 있는 남·북한 대치상황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특수한 이주집단을 만들어냈고, 이 때문에 이들의 남한 정착과정에 대한 연구는 복합적인 지역적 상황 내에서 파악해야만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분단 이후 1989년까지 총 607명에 불과하였다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 이후에는 연간 천명의 이탈주민이 남한으로 정착하였고, 누적입국자의 수는 2011년 4월 기준 약 21,000 여명에 이른다<sup>1)</sup>주: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은 보호결정을 기준으로 집계. [www.unikorea.go.kr](http://www.unikorea.go.kr). (2011년 11월 3일 검색).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약 3-5만 명으로(윤인진 2009, 27) 추산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 이들은 냉전시대에는 ‘귀순용사’이면서 남한의 이데올로기적 승리를 상징하는 ‘영웅’이었다면, 대량 탈북이 본격화된 1990년대 후반부터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경제적 약자’임과 동시에 남북

- 1) 1990년대 말까지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가 남성이었다면 2000년대에 이르러서야 성비가 비슷해졌고, 2002년을 기점으로 여성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최근에는 약 75%의 북한이탈주민이 여성이다 (통일부 자료).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은 보호결정을 기준으로 집계. [www.unikorea.go.kr](http://www.unikorea.go.kr). (2011년 11월 3일 검색)

| 구분    | ~'98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4 | 합계     |
|-------|------|-------|-------|-------|-------|-------|-------|-------|-------|-------|-------|-------|--------|
| 남(명)  | 829  | 563   | 506   | 469   | 626   | 423   | 509   | 570   | 612   | 666   | 578   | 242   | 6,593  |
| 여(명)  | 118  | 480   | 632   | 812   | 1,268 | 960   | 1,509 | 1,974 | 2,197 | 2,261 | 1,798 | 589   | 14,598 |
| 합계(명) | 947  | 1,043 | 1,138 | 1,281 | 1,894 | 1,383 | 2,018 | 2,544 | 2,809 | 2,927 | 2,376 | 831   | 21,191 |
| 여성비율  | 12%  | 46%   | 56%   | 63%   | 67%   | 69%   | 75%   | 78%   | 78%   | 77%   | 76%   | 71%   | 69%    |

한을 관통하는 냉전이데올로기를 확인시켜주는 존재로 다층적으로 위치되고 있다. 한편 인권이라는 또 다른 층위에서 바라볼 때 중국과 아시아를 꿰뚫는 이들의 이동 경로 내에서의 인권적 상황은 단순히 일국적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북한이탈주민의 이주를 가능하게 하는 이주산업은 인신매매, 노동착취, 인권유린 등의 문제를 집약적으로 함축하고 있기까지 한다. 다시 말해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이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중/단기간 거주한 이후 아시아를 관통하는 경로를 통해 남한으로 입국하는 점, 이 과정 내에서 수많은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 이탈주민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이 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점, 잔존하는 냉전이데올로기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의 성격을 규정짓기 쉽지 않다는 점 등을 비춰봤을 때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는 지금껏 이주연구가 다뤄온 어떤 이주집단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이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분단이라는 냉전이데올로기적 상황과 세계화의 작동이 확인되는 이주가 역설적으로 절합된 북한이탈주민의 이주를 분석하는데 적합한 이론과 방법론을 찾고 체계화하는 것은 그만큼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이에 이 글은 북한이탈주민연구 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틀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기존 이주 연구의 큰 흐름을 소개하고, 그 함의를 비판적으로 논의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이주의 특수성을 이론적/방법론적 측면에서 맥락화 하고자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의 정착과정을 일상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들이 남한사회라는 새로운 사회구조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저항하고 또는 타협하는지를 인류학적 방법론으로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하겠다.

## II. 이주연구 패러다임의 비판적 접근

서구의 이주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패러다임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구학적 설명 패러다임(Demographic Explanatory Paradigm)이고, 두 번째는 동화 패러다임(Assimilation Paradigm), 마지막으로 다문화주의 패러다임(Multiculturalism Paradigm)이다.

인구학적 설명 패러다임은 이주가 필요와 수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회적 현상으로 파악한다. 도식적으로 설명하면 인구가 넘쳐나는 가난한 남쪽 국가(the South)에서 노동력이 부족한 부유한 북쪽 국가(the North)로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이 패러다임은 초국가적인 인구 이동의 다양한 형태를 단순히 배출-유인요인(push-pull factor)으로 단순화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게다가 이민자를 정착국과 송출국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있어, 이민을 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이동으로 설명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수치상으로 유럽의 이민자 중 약 1/3에 해당하는 역이주자에 대한 적절한 시각을 제공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Morawska 1990). 위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인구학적 설명 패러다임이 대부분의 사회과학분야 특히 역사학적 시각의 이주연구에서 지금까지도 널리 활용되는 것 또한 사실인데(Ehmer 1998; Marschalck 1987; Rystad 1992), 단순히 인구의 변화와 이민이라는 두 변인으로 이민을 설명하는 것에 반대하는 대부분의 이민연구자들조차 인구학적 요소와 이민의 관계성을 당연한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 때문에 이 관계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듯 하다.

두 번째 연구 패러다임은 동화 패러다임(Assimilation Paradigm)으로, 소수민족과 그들이 정착하는 곳에 다수를 이루는 민족(혹은 인종)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 특히 이 패러다임은 20세기 초반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수 많은 이민자들이 동화작용을 거쳐 그들의 문화적/인종적 특성을 서서히 지워가고 각 민족의 경제단위를 만드는 대신 미국의 백인으로서의 정치, 사회, 경제적 기회를 보장받게 된 현상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동화 패러다임은 20세기 초반 유럽으로부터 건너온 이민자들이 미국사회 내에서 동화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지만 이른바 ‘새로운’ 이민자 그룹(남미, 아시아, 캐리비안)을 설명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Alba and Nee 1997, 845; Morawska 2003). 이 때문에 동화(혹은 통합) 패러다임은 1970년대에 이르러 많은 비판에 직면하였고, 이후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소수의 이주자 문화가 다수 정착자의 문화로 동화된다는 가정에 부정적 견해가 쏟아졌다<sup>2)</sup>.

세 번째는 다문화주의적 이주연구 패러다임이다. 특히 미국 이민자 사회에서 인종주의에 대한 고민이 깊어갈 때 등장한 다문화주의적 이주연구는 각 이민자 그룹의 문화, 민족, 인종의 차이로 인한 불평등을 문제시하고, 이민자 그룹간 혹은 이민자와 정착자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문화와 다인종이 공존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특히 인종이라는 개념이 고정된 카테고리라 아닌 사회적 상황에 따라 구성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각 시대와 장소에 따라 백인과 백인이 아닌 인종(White vs. Non-White)이 어떻게 이분법적으로 구분되고 재현되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로디거와 이그나티에브의 연구에서는 미국 이민자 1세대인 유럽인들이 이민 초기에는 인종적으로 ‘흑인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정착자와 구분되는 값싼 노동자로 자리매김 되다가 이후 동화작용을 거쳐 다시 ‘백인화’ 되는 과정을 연구하였는데, 이는 인종이 단순히 생물학적 구분이 아닌 상황과 시대에 따라 가변적이고 구성되는 카테고리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Roediger 1991; Ignatiev 1995). 하지만 다양성의 공존이라는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인종과 민족 연구에 집중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담론 내에서 이민자들을 연구할 때 소수 이민자의 인종/민족 특이성에 지나치게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연구들이 인종은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인종을 각 이주집단을 구분하는 근본적이고 확고한 틀로 인식하고 있는 것 또한 한계이다. 이주집단의 정착의 문제를 인종의 문제로 단순화 시킴으로써 정치, 문화, 사회 등 다른 요소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의 세계 정세의 변화를 겪으면서 인종 별 다문화화를 인정하였던 정책이 비판을 받게 되었고<sup>3)</sup>, 이로 인해 이주민을 국가라는 틀로 동화시키는

2) 하지만 적어도 서구의 이주연구는 동화 패러다임의 큰 틀 내에서 변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분절동화이론(segmented assimilation thesis)이다 (Zhou 1997; Schmitter Heisler 2000; Kivisto 2002)이다. 이민자와 그들의 자녀들은 소수민족문화와 정착문화의 관계에 따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경제/사회적 지위에 따라 동화의 정도와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이다. 또 다른 시각은 동화작용이 트랜스내셔널리즘과 함께 작동한다는 주장이다(Morawska 2003). 이민자들은 정착 사회로 조금씩 동화되어 가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본국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상징적 혹은 물질적)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기에 동화작용과 트랜스내셔널리즘은 분리 가능한 것이 아닌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Morawska 2003, 134).

3) 영국과 프랑스의 다문화주의적 이주민 정책은 테러리즘에 따른 변화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여 이주민을 영국과 프랑스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에 동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수상 데이비드 카메론이 다문화주의를 공식석상에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천명한 것과 프랑스의 사르코지

방향으로 정책적 방향이 선회하고 있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 Ⅲ. 이주연구 패러다임의 지역화: 북한이탈주민의 사례

위에서 살펴본 인구학적, 동화, 그리고 다문화주의적 연구 패러다임은 이주집단과 정착국(혹은 송출국)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변형하거나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분석적 틀로 활용하는 것이 옳다. 게다가 이주라는 사회현상이 복잡해지면서 여러 연구 패러다임을 다층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더욱 빈번해 졌다. 예컨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전반적으로는 동화 패러다임의 틀에서 이주와 정착의 문제를 분석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인구학적 설명도 가능하다. 중국의 개혁개방이 본격화된 1990년대 이후에 중국 동북 3성 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조선족은 중국 내에서는 농촌에서 도시로, 국외로는 남한으로 경제이주를 떠나게 된다. 특히 많은 수의 조선족 여성들이 남한으로 경제이주(혼인/취업)를 떠나면서, 조선족의 인구 증가율은 1992년에는 3.75%였던 것이 2001년에는 -1.21%로 급감하였고(정천구 2003, 200), 최근까지 조선족 인구 약 200만여 명 중 40만여 명 이상 남한으로 경제이주 한 것으로 밝혀졌다(박영희 2011, 4). 이와 같은 조선족의 인구 감소는 북한이탈주민이 좀 더 쉽게 중국으로 월경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임에 분명하다. 특히 대부분의 여성북한이탈주민은 중국으로 월경 이후 조선족(혹은 한족)과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에서 정착하거나, 남편의 경제적 도움을 발판으로 남한으로 이주한 후 국적을 취득하고 이후 남편과 자녀들이 남한으로 이주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장명선·이애란 2010, 282). 하지만 인구학적 설명 패러다임의 한계점은 북한이탈주민의 사례에서도 들어난다. 조선족 인구 감소가 북한이탈주민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게다가 북한이탈주민 다수가 중국에서 정착하기 보다는 남한이나 제 3국으로 이주하기 위한 경로로 중국에 중/단기간 정착한다는 점에서 인구학적 패러다임은 북한이탈주민 이주의 특이성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동화 패러다임의 시각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이주를 분석할 때에는 몇 가지 지역적 특이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이 소수집단으로 남한사회 내로 동화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이민자 집단과는 다른 방식의 타자화 장치들이 작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남한사회에 뿌리깊게 형성된 냉전이데올로기는 때로는 문화적으로, 때로는 제도적으로 이들을 구분해낸다<sup>4)</sup>. 또한 ‘동포’를 앞세우는 민족주의적 시각은 이들을 한민족 담론으로 접근함으로써 이들과 남한사람들간의 문화적/언어적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강압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즉 이들은 외국인인 아닌 우리 ‘동포’이기 때문에 남한사회에 동화되어야만 하는

대통령이 무슬림이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한 것 등이 예이다.

- 4) ‘취업하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구인광고를 접하고 문의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독특한 역량을 들은 고용주가 중국교포인지를 물어보게 되는데, 중국교포라고 하면 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이미 사람을 뽑았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이철우 2010, 16).

대상이지만 이들은 남한과 대치하고 있는 ‘북한출신’이기 때문에 외국인보다도 더 외계인화(Alienating) 하는 경향이 존재한다<sup>5)</sup>. 북한이탈주민의 이와 같은 중의적 위치는 다문화주의적 패러다임의 시각이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생물학적 인종으로 구분되지는 않지만 정치·문화적으로 깊숙이 작동하고 있는 냉전이데올로기가 이들을 또 다른 사회적 ‘인종’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 50여년의 분단으로 인해 북한과 남한의 문화, 언어, 생활양식, 가치, 규범 등의 이질화는 북한과 남한을 다른 사회적 ‘인종’으로 고착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사회의 민족주의적 시각은 이들의 문화를 ‘다문화주의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남한사회의 문화를 암묵적인 규범으로 상정하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이 규범에 도달할 것을 여러 사회적 장치(교육기관, 보호기관, 복지기관)를 통해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연구의 또 다른 어려움은 연구대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경제 혹은 환경난민으로 보고 주변국들이 난민지위를 보장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특히 북한의 정치탄압에 의한 탈북자들에 초점을 맞추거나,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강제 소환될 경우 겪게 될 고초를 감안하여 난민지위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중국 내 탈북자의 인권을 보장하자는 주장에 기반한다(정주신 2009, 177-186 ; 이용호 2002 ; 이금순·윤여상 2006 ; 임채완·최영관 2000). 반면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이 국제법상 난민의 범주에 속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난민은 주로 정치적 박해를 피해 고향을 등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반면<sup>6)</sup>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중국이나 남한으로 이주하였고 이 때문에 이들의 이주의 목적은 정치적 박해가 아니라 경제적 이유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 사회에서 시장의 등장 이후, 중국과의 공식적/비공식적 무역, 무역활동을 통해 확장된 생활경험과 남한사회의 문화에 대한 동경 등이 최근 탈북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들을 ‘경제이주자’로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안중수 2010; 노귀남 2011 ; 윤인진 2009). 즉 최근의 북한이탈주민은 식량위기라는 환경적 재해를 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점차적으로 많은 수의 이탈주민이 ‘더 나은 미래’, ‘자기 발전을 통한 질 높은 삶’, ‘남한 대중문화 접촉으로 인한 남한사회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좋은 교육 환경’ 등의 이유로 월경을 감행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경제이주자로 보는 관점이 더 설득력 있다는 주장이다<sup>7)</sup> (김인성

5) 이러한 상반된 시각은 정부의 정책에서도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은 ‘보호’의 대상이면서, ‘관리’의 대상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 시 <정부합동심문센터>에서 심문하는 과정(주로 대공용의점이나 북한의 동태파악을 목적으로), 이후 하나원에서 격리 수용되어 교육받는 과정, 지역으로 배치된 이후 경찰서에서 신병보호를 맡는 것도 이와 같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사회의 이중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 난민협약 제 1조에 의하면 “난민은 1)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의 사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 자, 2)자신의 출신국 밖에 있으며, 3)박해의 공포로 인하여 출신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거나, 또는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거나, 또는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다(UNHCR 1997, 12).

7) 동북아의 복잡한 정치논리가 작동하는 한반도의 정치 상황은 중국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 규정짓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게다가 중국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 규정하고 정당한 지위를 제공할 때 다수의 북한주민이 남한뿐 아니라 중국으로 이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하는데 더욱더 소극적이다.

2005 ; 2011년 C씨 인터뷰 2011 ; 2011년 K씨 인터뷰).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이나 경제이주자라는 단일한 틀로 설명할 경우 탈북이라는 중층적 의미를 제대로 맥락화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많은 수의 북한이탈주민이 경제적 이유로 월경을 감행한다고 하더라도 남북 대치상황과 중국의 강제송환 방침 때문에 이동경로는 극도로 위험하고 이주과정은 불법적이어서 인권적 측면에서 여전히 난민적 성격이 강하고, 남한 내 정착의 과정에서는 보호의 대상과 동시에 위협의 가능성이 되면서 탈북의 성격과 정의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양상을 띤다.

이와 같은 탈북의 이중성은 탈북자에 대한 정부 정책의 변화에서도 잘 나타난다. 과거 탈북자는 ‘월남귀순용사’로 일컬어 졌다면,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공산주의는 실패하였다는 의식이 팽배해짐에 따라 탈북자를 더 이상 냉전이데올로기적 시각으로 규정짓지 않고, 민족정체성을 강조하는 틀에서 이해하고자 이들을 ‘귀순북한동포’로, 1997년부터는 공식적으로 ‘북한이탈주민’으로 명명하고 있다. 1997년 개정 공포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가리킨다. 이념 대립이 한창이었던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탈주민은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국가유공자였지만, 냉전이데올로기가 약화되고 대량 탈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0년대 이후에는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통일부가 관리의 주관부서가 되었는데, 정부는 이들에게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1항)<sup>8)</sup>.

최근 한국 학계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연구가 급증하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 이론적/방법론적 틀은 미약하다. 대부분의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파악, 정서 장애와 해결방안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그리고 남한사회의 적응 과정과 정책에 관한 연구 등 3가지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남북의 특수상황에 대한 충분한 맥락화 없이 동화 패러다임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예컨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탈북자 실상(좋은 벗들 1999)에 관한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에 관한 분석 연구(전우택 외 2010 ; 엄태완 2010), 국내의 탈북자 정착의 문제점(정주신 2005 ; 곽해룡 2005), 탈북 청소년들의 남한 사회 적응의 문제점(박윤숙·윤인진 2007 ; 김윤영 2005), 북한이탈여성의 경제적 자립 방안(장명선·이애란 2010)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다소 특수한 이주의 현상 파악에 치우쳐 있거나 남한사회에 성공적 정착 방안에만 집중되어 있는 나머지 당사자들이 남한사회에 ‘어떻게’ 동화 혹은 구별되는지, 이들의 문화, 경험, 언어, 가치관 등이 이동과 정착의 단계에서 변화되고 재구성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고민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암묵적으로 인간을 구조에 적응하는 수동적 존재로 규정하고 있어 인간(행위자)과 구조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대부분의 연구의 방법이 양적 방법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과 남한사회의 적응 여부에 대한 통계적 자료의 축적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8)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은 2010년 개정되어 사단법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발족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 설립과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실행 중에 있다.

수 있으나 가설의 범주를 인위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양적 방법은 이주와 새로운 사회에서의 살아가는 것의 '의미'의 다층성을 포착해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분명하다. 최근에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치적 정체성을 구술사적 방법으로 연구한 이희영(2010)의 연구는 양적 방법의 한계성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적 정체성 구성이라는 주제를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정체성의 구성을 개인과 일반화된 타자와의 상호작용의 과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이탈주민의 정체성의 구성을 미시적인 차원에만 국한하고 있다. 개인과 타자라는 미시적 차원이 정체성의 구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남한이라는 이질적인 사회로 이주한 북한이탈주민이 겪게 되는 사회구조적 갈등을 간과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구성론의 시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이주현상을 접근하되, 인류학적 방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이주-정착과정의 구조와 행위수행과의 관계적 역동성을 포착할 것을 제안한다.

#### IV. 북한이탈주민 일상연구: 사회구성론 (Structuration Theory)과 인류학적 접근

사회구성론은 인간의 행위수행이 구조에 의해서 어떻게 한계 지어지거나 혹은 가능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행위수행이 어떻게 구조를 변화시켜가는 지를 설명한다<sup>9)</sup>. 지금껏 사회학의 객관주의(Objectivism)와 주관주의(Subjectivism), 구조(Structure)와 행위수행(Agency)를 구분했던 이원론(dualism)에서 벗어나 구조의 이중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구조와 행위수행과의 관계를 증명하려는 시도<sup>10)</sup>가 사회구성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조의 이중성(Duality of Structure)의 개념은 아래와 같다.

사회체계의 구조적 속성은 그들이 반복적으로 조직하는 관행들의 매개체(medium)이자 결과물(outcome)이다. 구조는 개인에게 '외재'하지 않는다. 즉 기억의 흔적으로서 그리고 사회적 관행에서 실증되는 구조는, 뒤르켐주의적 의미에서처럼 개인활동에 외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내재적'이다. 구조는 제약이 아니라, 언제나 제약(constraining)이자 가능성(enabling)이다.(기든스 1998, 74)

구조의 이중성이라는 개념은 구조적 분석이 행위수행의 수동성을 가정하고 있는 점이나 행위

9) 기든스는 사회구성론의 목적이 해석적 사회학의 이른바 주체의 제국주의와 기능주의와 구조주의의 사회적 객체의 제국주의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하였다(기든스 1998, 44-45).

10) 기든스(Giddens)의 구조의 이중성의 개념은 부르디외(Bourdieu)의 구조화된 구조(Structured Structure)와 구조하는 구조(Structuring Structure)라는 개념과 상당한 유사성을 갖는다(Bourdieu, 1977). 부르디외는 구조화된 구조와 구조하는 구조는 아비투스 안에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즉 아비투스는 사회구조의 결과물이면서 사회구조이기도 하다. 즉 아비투스는 지속적이면서도 이동 가능한 성향을 가리키는데, 이는 구조화된 구조로써 행위와 재현을 구조화하는 구조로 작동한다(Bourdieu 1984, 170).



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 갖는 미시적이고 주관적 결과라는 한계를 적절하게 극복할 수 있는 제안이다. 즉 구조와 행위수행의 분석수준을 동시에 사용하고 이 둘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에 주목함으로써 행위자가 어떤 방식으로 일상생활을 구성-재구성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든스에 의하면 사회구조는 ‘규칙’과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칙’은 상징(언어적 의미)과 규범 등을 가리키고, ‘자원’은 지배구조물들(정치, 경제, 권력, 권위적 장치 등)이라고 정의한다(기든스 1998, 78-86). 다시 말해 규칙은 사회적 행위를 가능케 하는 특정한 기술이나 일반화된 관행 등을 의미하고, 자원은 인간의 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제약하는 일련의 수단들을 말한다. 각 개인은 사회적 행위 시 규칙과 자원을 자신들의 앎(knowledgeability)의 능력을 통해 끊임없이 적용하여 행위를 구성해나간다. 또한 행위수행은 각 행위자의 사회적 환경에서 가능한 정도의 규칙과 자원으로 구성되며, 행위자는 구조적으로 구성된 자신들의 능력을 새로운 환경에 맞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Sewell 1992, 4-20). 행위자는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의 행위를 성찰적 감시(Reflexive Monitoring of Action)하기도 하고 타인이 자신의 행위를 같은 방식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재고적 지식(Stocks of Knowledge)<sup>11)</sup>’을 구성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한다.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와 구조의 관계를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위수행을 하고, 이 행위를 정당화를 하는데, 이와 같은 과정은 세 차원의 의식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첫째는 무의식(the unconscious)으로 행위자의 심원에 존재하여 행위의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 차원이고; 두 번째는 관행적 의식(the practical consciousness)으로 행위자의 동기나 제도의 규칙이나 자원이 인지되고 행해지지만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이고; 마지막은 담화적 의식(the discursive consciousness)으로 지식과 소통이 언어적 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관행적 의식과 담론적 의식은 뚜렷하게 분리되기 보다는 ‘말해질 수 있는 것’과 ‘단순히 행해지는 것’ 사이의 차이만이 존재한다(기든스 1998, 50).

구조와 행위수행의 관계를 구성하는 위의 세 가지 차원은 궁극적으로는 존재론적 안정감(Ontological Security)을 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기든스는 존재론적 안정감은 행위자가 불안에 휩싸이지 않으면서 ‘자아와 사회정체성의 기본적인 실존적’ 환경이 안정된 상태라고 정의한다(기든스 1998, 479). 존재론적 안정감은 성찰적 감시를 통한 행위의 정당화를 통해 얻어지기도 하고, 행위자의 오랜 시간 동안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관행(routine)과 관행이 행해지는 공간을 통해 구성된다<sup>12)</sup>. 이후 기든스의 사회구성론은 여러 각도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어

11) 기든스는 재고적 지식이라는 개념은 슈츠(A. Shutz)에서 차용되어온 개념이고, 이 밖에도 고프만(Goffmann)과 가펩클(Garfinkel)의 민속방법론(Ethnomethodology)등을 사회구성론의 주요 개념으로 차용하였다.

12) 그레고리는 기든스의 사회구성론이 공간보다는 시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비판한다. 기든스가 공간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발전시키지 않았다는 비판은 기든스의 사회구성론이 현실 사례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의 시발점이 된다. 하지만 기든스는 자신의 사회구성론이 현실 사례에 단순히 적용하기 위한 이론이기 보다는 철학적 혹은 추상적 차원의 개념적 틀로 정의 내렸다(기든스 1998; Ritzer 2000, 392).

왔지만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비판은 기든스의 존재론적 안정감이라는 개념은 철학적이고, 추상적 분석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사회구성론은 현실사회의 사례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Stones 2005, 31; Urry 1991, 71).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상황(특정한 시간/공간)의 특수성을 함축한 존재론(Ontology-in-suit)을 구축해야 한다. 보편적인 존재론적 안정감은 철학/이론적 수준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다양한 사회 실재 상황에 바탕을 둔 존재론적 인식의 영역 확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북한이탈주민의 이주와 정착이라는 연구주제를 사회구성론의 틀에서 접근할 경우 이주와 정착이라는 행위수행과 북한이라는(혹은 남한/제 3국) 사회의 특정한 구조와의 연관관계를 조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구조가 규칙과 자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가정할 때 북한사회내의 특정한 규칙(상징과 규범)과 자원(정치, 경제, 권력, 권위적 장치)들이 이탈주민의 이주를 가능하게 혹은 제한하였는지(역으로 남한사회내의 특정한 규칙과 자원이 북한이탈주민의 이주를 가능하게 혹은 제한하였는지)가 명확해 질 것이다. 게다가 대량 탈북이 시작된 1990년대 후반부터는 이주라는 행위가 북한사회 내(혹은 남한사회 내)의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재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에도 유용한 틀을 제공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탈주민의 이동-정착의 경험에서 행위자가 어떤 방식으로 구조를 내재화하고 동시에 행위 수행 시 구조를 재구성 하는지와 어떻게 행위자의 재고적 지식이 확장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행위를 성찰적으로 감시하고 정당화하여 존재론적 안정감을 구축하려고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구조와 행위수행의 관계성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인류학적 연구방법이 가장 적절하게 쓰일 수 있다. 기든스는 행위자가 행위수행과 구조와의 관계를 인지하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성찰적 감시를 강조하였고, 이 과정은 무의식, 관행적 의식과 담화적 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관행적 의식은 행위자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구조를 인지하고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기든스 1998; Healey 2006; Berger 1995). 이는 말로 표현되거나 설명되지 않지만 행위자들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행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동안 중국에 머물면서 경제활동을 한 이탈주민들은 자본주의적 경제관념이나 생활방식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남한에서 안정감을 구축해 간다는 것 등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하지만 관행적 의식은 언어로 표현되지 않고 행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뷰만을 통해서 포착해 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때문에 인터뷰 시 인터뷰이의 행동을 관찰한다든지 인터뷰 내용의 행간을 분석하는 방법 등이 활용되고 있기는 하나 역시 행위자가 실제로 어떻게 행위 하는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인류학적 연구방법론이 이와 같은 접근에 유용할 수 있다. 적절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참여관찰), 인간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이 실제로 이주/정착의 과정에서 본국과 정착국 사이의 상의한 구조들을 해석하고 성찰적으로 감시하여 행위수행에 적용하는지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담화적 의식의 경우 행위자들이 자신의 행위와 그 이유를 통일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기든스 1998). 즉 행위자들이 자신의 이주와 정착의 경험을 자신의 내러티브로 구성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북한이탈주민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인권

정보센터에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온 이용화 팀장은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생각을 넘어 남한으로 이주한 분들이기 때문에 연구자가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파악하여 자신의 경험을 극대화하는 경우도 많고, 연구자가 북한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북한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으로 증언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한다<sup>13)</sup>(이용화 인터뷰 2011; 윤택림·함한희 2005). 이와 같은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말해지는 것은 사실(fact)도 투명하지도 않다는 것을 인지함과 동시에 인터뷰이의 경험의 내러티브를 확인하기 위해서 긴 인터뷰보다는 여러 번의 인터뷰를 실시하고, 인터뷰어의 의도가 드러날 수 있는 구조화된 질문이 아닌 개방형 질문으로 인터뷰이가 주도적으로 자신들의 이주의 경험과 행위의 이야기를 풀어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윤택림·함한희 2005; 양현아 200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999; 이희영 2011).

## V. 북한이탈가족의 정착 경험과 존재론적 안정감(Ontological Security)의 구축

연구자는 앞서 다룬 사회구성론의 틀에서 인류학적 연구방법을 기축으로 북한이탈주민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1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오랫동안 경험해온 사회복지사, 전/현직 정부관계자, 연구자들의 인터뷰와 문헌조사 등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연구 흐름이나 현황을 파악한 후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를 참여관찰 하였다. 이들 중 A씨 가족은 중국을 통해서 남한으로 이주해온 케이스로 AOO(남편, 42살), BOO(부인, 37살) 그리고 AOO(아들, 12살)로 구성되어 있었다. 연구자는 지금까지 16차례 AOO 가족과 만났다. 짧게는 서너 시간에서 길게는 하루 종일 시간을 함께 보내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서로간의 신뢰(rapport)를 구축하였다. 가족은 점차적으로 마음을 열고 자신들의 경험이나 상황을 얘기하기 시작하였고, 연구자는 구조화된 인터뷰가 아닌 자유스런 대화 및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본주의, 사회문화적 환경, 언어, 교육 등의 구조와 북한이탈가족의 행위수행의 관계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A씨 가족은 초기 정착단계에서는 남한사회의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한 편이었는데, 그 이유는 A씨가 오랫동안 중국과 북한을 오가면서 밀수를 해왔기 때문이다. 이탈주민이 자본주의의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경우 남한사회에서의 정착은 그만큼 수월하다. 자본주의 사회 구조는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이 문화적 부적응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특히 경쟁과 책임에 기반한 경제적 자유라는 사회구조를 받아들이지 못해 정부의 보호와 지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이철우 2010, 12). 이미 10여년 전부터 중국을 드나들었던 A씨는 장사를 했던 경

13) 또 다른 문제점은 합동신문센터에서부터 하나원을 거치면서 북한이탈주민은 수 많은 설문지와 인터뷰를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인터뷰의 질문에 따라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혹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인지 학습하게 된다.

험과 중국의 자본주의에 대한 앎(knowledgeability)을 활용하여 남한사회의 자본주의 구조를 탐색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A씨는 빠른 시일 내에 직장을 구하고자 할 뿐 아니라, 남한 사회의 정보를 수합하여 자신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지를 선정하는 모습도 보인다.

“아(부인)는 일 못해요. 몸이 안 좋거든요. 내가 일을 빨리 해야 해요. 베어링 공장… 들어봤어요? 저 거기 하나원에서 면접 봐서 됐거든요. 120만원 준다고 하던데… 그 정도면 어떤 건가요? … (중략)… 하나원에서 다들 서울로 배정받고 싶어 하는데, 사실 내가 하나원에서 반장해서 전입하는 지역을 고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난 서울 안가고 부천으로 온다고 했어요. 왜냐면 중소기업…중소기업 그것 때문이에요. 중소기업이 많으니까 직장 구하기 쉬울 것 같아서요.”(2011년 4월 A씨 전언)<sup>14)</sup>

“그 경찰서가 울 집 앞으로 옮기는데, 그걸 짓고 있는 사장님을 요 앞 김밥천국에서 만났어요….(중략)…거기서 우리끼리 말을 하니까 아무래도 우리 말투가 이상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말을 걸어요. 거 경찰서 짓는데 일할 생각 없냐고 합디다. 내 예전에 평양 가서 건설도 했었거든요. 노가다.. 여기선 노가다라고 부르던데. 거기 가서 일하면 일당 9만원 쳐준다는데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아… 집에서 놀면 뭐하나 싶고, 내 요즘 잠을 잘 못 자요. 빨리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2011년 5월 A씨 전언)

“노가다 해보니까 이게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도무지 끝이 보이지를 않아요. 나라에서 자격증 따면 지원금 준다고도 하고…저 중장비…그거 하려고요. 알아보니 자격증만 따면 한 달에 300 만원은 수월찮게 번다고들 하고…그래서 저 학원 다니려고 해요.”(2011 8월 A씨 전언)

A씨는 ‘돈’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해서도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주문처럼 외었다. 임금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끊임없이 확인하였고, 좀 더 안정적인 직업을 구해 ‘돈’을 벌고자 하였다. 북한에서는 돈이 생기면 ‘중기(가구나 전자제품)’를 사들이는데 썼는데, 남한에 와보니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며 연구자에게 은행의 적금이나 보험 상품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이는 부인인 B씨의 이야기에서도 잘 들어난다.

“내가 요즘 벼룩시장 보고 있어요. 내 집에서 놀면 뭐하나. 아(남편)가 노가다 나가는데 힘이 드는지 처음에는 저보고 일하지 못할 거라고 하더니만, 몇 일 일하더니 지가 힘이든지 나 몸 좀 나서면 그리 힘들지 않은 일로 하라고 해요. 내 생각도 그렇고요. 아(남편) 만 일하라고 하는 것도 미안하고. 한 이 만원만 벌 수 있는 일. 김밥천국에서 김밥 팔라고 하는데, 어떨까 생각 중이에요.”(2011년 6월 B씨 전언)

“아 (남편)은 앞으로 3년 이렇게 열심히 벌어서 음식장사 하자고 해요. 그때 선생님이라든 간 평양냉면집 같은 걸로요. 그럼 돈 정말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요즘 저보고 자꾸

14) 일정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고, 하나원에서 퇴소한 이탈주민은 타인을 심하게 경계하는 경향이 있어 모든 인터뷰를 녹음 하지는 못하였다. 녹음된 인터뷰와 인터뷰이가 언급한 내용을 연구자의 필드노트와 기억에 기반해서 최대한 사실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이 때문에 이 인터뷰 자료에서는 북한언어의 특이성이 약화되었다.

이런 저런 음식을 하라고 하는데 아주 귀찮아요.”(2011년 8월 B씨 전언)

A씨 가족은 직장을 구하는 것이 남한 사회에서 정착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이는 노동력을 팔아 임금으로 교환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 사회의 중요한 원칙을 이들이 인지하고 자신들의 행위수행에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미래를 계획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남한 사회내의 북한 음식의 희귀성을 활용하여 장사를 하면 금전적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꿈을 갖고 있다. 하지만 남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노동강도는 그들이 적응하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동안 가구점에서 일을 한 A씨는 도무지 담배 한대 필 시간이 없다며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일하라며 당황해 한다. 게다가 B씨의 경우에는 일하던 슈퍼마켓에서 갑작스런 허리 통증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사장으로부터 이 정도 일도 못 견뎌낸다면 그냥 북한으로 돌아가라는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의기 소침해 하였다.

남한 사회의 낯선 환경에 대한 이탈가족의 부적응 반응은 다양하게 확인된다. 남한 사회의 다양한 구조에 대한 가족의 생소함은 일상생활의 작은 사건이나 신체 반응 등으로 발현 되기도 한다. A씨 가족의 경우 차멀미를 심하게 하는 것, 남한의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 큰 건물 안에서 느끼는 혼돈감, 소외감과 외로움 때문에 나타나는 두통 및 스트레스성 증상 등이 이에 해당된다. 덧붙여 B씨의 경우 공장이나 슈퍼마켓에서 일을 할 때 심한 육체적 피로감과 외부적 통증을 호소하는데, 의학적인 검사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일을 하는 공간에서 느끼는 신체적 고통은 심리적인 위축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르디외는 아비투스( habitus)는 지속 가능하고 내재화된 성향과 구조의 체계라고 정의하면서 이는 인간의 신체, 음식 및 의복 취향, 취미 등에도 깊게 자리한다고 하였다(Bourdieu 1984; Stones 2005). 예를 들어 A씨 가족이 하나원에서 퇴소하고 부천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멀미를 호소하였다. 자동차를 타본 경험이 많지 않아 어색하다고 하고, 자동차에서 나는 독특한 냄새가 어지럽게 한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A씨 가족은 집 근처에서 벗어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였고,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한 음식의 경우 남한의 음식은 거의 손을 대지 못하는데, 남한의 음식이 너무 달기도 하고 기름져서 입에 맞지 않는 것이 이유이다. 부인 B씨는 아이가 급식에 손을 대지 않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허겁지겁 밥을 먹는다며 안타까워한다. 사회문화적 환경의 괴리감은 큰 건물과 같은 혼잡한 곳에서 극대화 된다. 쇼핑몰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서 부부는 어리둥절해 하거나 정신을 차리기가 어렵다고 호소해 온 반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동네 재래시장이나 가족들만 있는 집안의 공간에서 상당한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생소함은 행위자의 경험의 폭이 넓어지면서 점차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가족은 주변 남한 사람들이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남한 사람들의 외모와 행동 등을 유심하게 관찰하였다가 그들의 모습을 흉내 내는 것 등의 전략으로 이를 극복하려고 한다. 가령 부부는 아이의 옷을 최근에 남한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옷과 같은 것으로 비용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사주려고 노력한다.

“...가재미를 사려고 했는데, 아이고 OO 체육복 바지를 사러 동네를 너무 걸어 다녀서 힘들어서 못 샀어요. 쫄대바지. 거 알아요? 요즘 애들은 다 그거 입더라고. 우리 OO 이도 그거 입히려

고 아 친구 엄마한테 물어서 갔는데 글썄 15만원이에요. 그래서 너무 비싸서 못 샀어요. OO 곧 학교에서 어디로 놀러 간다는데 그때 그 옷 입혀 보내야 하는데…”(2011 9월 B씨 전언)

“... 쫄대바지랑 잠바를 같이 사야 하는데 너무 비싸서 결국 쫄대바지는 시장에서 비슷한 것으로 사고 잠바만 매장에서 15만원주고 샀어요. 그런데 옆집 아줌마가 내가 산 쫄대바지가 짜가라면서 그러면 아이들한테 놀림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런가요? 우리 아이가 아이들한테 놀림 받으면 안되는데…” (2011년 9월 B씨 전언)

“거 머리 어디서 잘랐습니까? 얼마인가요?...나도 머리 자르고 싶은데. 아직 형편이 안되니 일단 길렀다가 나중에 선생님 가는 그 곳 가서 잘라야겠어요.”(2011년 5월 B씨 전언)

신체가 아비투스가 표현되는 캔버스라면 A씨 가족은 자신들의 이미 형성된 아비투스를 남한 사람들의 모습을 모방하면서 조금씩 재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식의 경우도 확장된 경험이 이들의 취향을 서서히 변형시키고 있었는데, 도시락에 들어있는 튀김들을 손도 대지 못하고 밥만 먹었던 A씨 가족은 만남을 거듭할 때 마다 조금씩 자신들의 음식 취향을 남한 식으로 바꾸어가고 있다. 입에도 대지 않았던 커피는 이제 식사 후에 꼭 마셔야 하는 것으로 자리 잡혔고, 자동차를 타지 못할 정도의 멀미는 하나원 퇴소 후 6개월 만에 말끔하게 해소되었다.

한편 언어가 구조로 작동하여 행위수행을 제한하고 가능하게 한다면 이들은 남한의 언어로 인해 행위수행에 제약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은 남한 언어와는 이질적인 북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남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답답해 하였다. 쇼핑을 하거나 남한 사람들을 만날 때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힘겨워 했고, 아들은 심한 북한 사투리를 쓰는 부부에게 남한 말을 배울 것을 요구하였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순 외국말에... 나 영어 그거 배워야 하는데. 내가 안되면 우리 아이라도 영어 해야 해요.” (2011년 5월 B씨 전언)

“(아이의 옷을 사러 이마트에 다녀오는 길에) 이걸 선생님 없었으면 사지 못했어요. 뭐라는 건지. 복잡하고, 설명을 알아먹을 수가 없어…” (2011년 5월 A씨 전언)

하지만 행위자의 언어 구조에 대한 적극적인 행위수행도 나타나는데 이는 ‘남한 말투’를 흉내 낸다거나 공공장소에서 북한 억양을 들어내지 않기 위해 소리 죽여 말을 하는 것 등이다. 아이의 경우 빠른 속도로 남한식 언어를 익혀가고 있고, 아이가 가르쳐준 대로 A씨와 B씨는 남한의 어투를 흉내 내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식 언어의 단어는 점차적으로 학습될 수 있지만 어투나 억양은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가족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면접할 때나 낯선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을 조선족이라고 소개하기도 하였다.

“오늘 아침에 OO이 친구들이 왔는데 어무이는 그래도 비슷하게 남한말 하는데 아버지는 남한말 하는 게 어색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아(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내 웃겨서…” (2011년 5월 B씨 전언)

라는 식으로 남한의 언어 때문에 겪게 되는 일들을 인지하고 있었다. 자신들의 언어 사용을 계속적으로 감시하고 주변의 반응을 여러 번 확인한 이후에 A씨 가족은 식당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목소리를 낮춰 이야기를 하였다. 하나원을 퇴소한 직후에는 “내가 북한에 있을 때…” 라는 말을 자주 하면서 ‘북한’을 정확하게 말하였다면, 남한 사회에 정착의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을 말해야 할 때는 ‘거기’, ‘그곳’ 등의 지시어를 쓰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하였다. 이는 북한 언어와 억양이 남한 사회 내에서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점차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남한에서의 교육문제는 A씨 가족에게는 구조적 제약으로 다가오고 있다. A씨와 B씨는 자식에 대한 극진한 사랑으로 남한행을 결심하였는데, 특히 북한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사회가 흥흥해지자 이대로 살면 아이한테 나쁜 영향을 끼칠 것 같아 남한행을 결행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남한의 교육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과열되어 있었고, 부부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아이가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고 답답해 하였다.

“난 우리 OO이 때문에 이리로 왔어요. 이젠 북한에 있으면 야도 나랑 비슷하게 살 것 같더라고요. 우리 OO는 공부를 많이 해서 돈도 많이 벌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내 아는 게 없어서 야를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고…”(2011년 6월 B씨 전언)

하지만 남한의 교육과정이나 교육에 대한 정보와 경험의 부족은 이들을 한없이 불안하게 한다. 아이의 친구들이 학원을 간다고 하는데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아이가 학원에 가면 따라갈 수 있을지 등등의 걱정을 하였다. 그러던 즈음에 그들이 생각해낸 극복방안이 바로 과외선생님이었다. 이 부부는 연구자에게 과외선생을 구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비용 때문에 무료로 과외수업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

“영어랑 수학 개인교사를 뒤편이라도 공부를 시켜야겠어요. 야가 원래 놀음, 놀음밖에 모르는 아이거든요. 북한에 있을 때는 개인교사를 뒤편 자기 자식마냥 공부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남한은 그것도 어렵고. 이러다가 아이 망칠까 걱정이예요.”(2011년 6월 A씨 전언)

아이가 학교에서 생활을 잘 적응하는지 공부는 잘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였고,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하였다. 학교의 담임선생님도 자주 찾아서 의논하곤 하였는데, 부부는 특히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A가 수학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자 B는 모든 불안감과 걱정이 사라진다고 기뻐하였다. 남한에서 적응하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A만 공부 잘한다면 자신들의 고생은 다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A가 학교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그 만큼 남한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것이겠지만, 부모가 자녀의 적응 정도에 따라 자신들의 이주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하겠다.

위에서 언급한 자본주의, 사회문화적 환경, 언어, 교육 등의 남한 사회 구조에 대한 정보 부족은 이들의 행위수행에 상당한 제약이다. A씨가 중국을 오가며 무역을 하였고, B씨의 가족이 중

국으로 이주한지 오래 되어서 중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수준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새로운 남한 사회구조를 짧은 시간에 내재화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사회주의와 혼합된 형태의 중국의 자본주의는 북한의 사회체제에도 상당하게 유입되어 이들이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는 반면, 경쟁이 극도화된 신자유주의적 한국의 자본주의는 매 순간 이들을 극도로 혼란스럽게 한다. 또한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는 두 국가의 문화가 적절히 섞여 있어 사회문화적 환경이 그리 이질적이지 않았고, 중국 동북 3성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언어는 이들의 언어와 유사하여 이들에게 상당한 안정감을 주었다. 반면 남한의 사회구조는 북한이나 이동 중에 경험한 다른 사회구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부부는 요즘 들어 말싸움이 잦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각자가 인지하는 남한 사회의 모습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예를 들어 도움을 주겠다고 다가오는 남한 사람들에 대해서 부인은 경계의 눈길을 보낸다. 부인은 남한 사람들은 밥 한번 사도 다 꿩꿩이 속이 있기 때문에 남한 사람을 믿을 수 없다고 하였다. 반면 북한과 중국에서 장사를 오랫동안 한 남편은 그래도 예의를 갖추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믿고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말싸움을 하기 일쑤였다. 새로 적응하는 사회에 대한 정보와 경험의 부족은 이들의 행위 수행을 제약할 뿐 아니라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결정적 요소이다.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이들의 극복 방안(직장을 구해서 경제 생활을 하려는 것, 남한 사람의 외모를 모방하고 낮은 환경에 익숙해지려는 다양한 노력, 남한 언어를 배우려는 것, 아이 교육에 타인의 힘을 빌리는 것)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고, 행위 속에서 반복적으로 수행되면서 점차적으로 이들의 새로운 일상체계(routine)를 형성하고 있다<sup>15)</sup>. 하나원 퇴소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지금 A 가족은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씩 일상세계를 구성해 가고 있다. 여러 번 직장을 옮기기는 했지만 A씨는 비교적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B씨에게 나타났던 불안감을 동반한 신체증상 등은 눈에 띄게 완화되었다. 아이의 경우 몇몇 상급생이 북한에서 왔다고 놀려서 가슴앓이를 하기는 했지만 점차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나온 지원금과 A씨가 한달 동안 가구점에서 일한 임금을 합하여 침대, 소파, 책상, 장 등의 가구 일체를 장만하였는데, 가구를 들여놓고 나니 이제 이곳이 내가 살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기뻐하였다. 그 전에는 계속 떠돌아다니는 느낌이 있었다면, 이제는 내 삶이 이 곳에 있다(space of routine)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일상과 일상의 공간 등은 점차적으로 이들의 존재론적 안정감을 재구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은 과정을 겪으며 이들은 남한 사회에 서서히 정착하고 있다. 물론 이들의 안정적 수준의 정착은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단순히 남한 사회의 구조에 적응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이들의 행위 수행이 남한 사회의 구조를 다양한 방식으로 재구성/재생산 하는 점(Giddens 1976; Stones 2007, 20)을 감안할 때 남한 사회도 이들의 행위 수행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냉전 이데올로기의 시각에서 벗어나 남한 사회내의 이들의 존재를 좀 더 다문화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회구조의 재구성

15) A씨 가족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 중이다. 이들이 일상을 어떻게 구성해나가는지, 남한 사회의 구조를 어떻게 내재화하고 자신들의 재고적 지식을 확장시키면서 극복 방안을 도출하는지는 계속적인 인터뷰와 인류학적 관찰을 통해 확인해 갈 것이다.



또한 행위수행과 구조의 변증법 관계 속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가능성이 어떻게 현실화되는지, 즉 북한이탈주민의 반복적 행위수행이 현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조화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구조를 재생산 하는지는 후속 연구에서 좀 더 진전시키도록 하겠다.

## VI. 마치며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에 북한이탈주민의 이주와 정착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사회학적 연구의 필요성은 더 이상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북한이탈주민의 이주-정착의 경험은 타 이주 집단과는 다르게 탈냉전시기에 냉전 이데올로기가 작동되고 있는 남과 북의 대치상황과 넓게는 동아시아의 정치적 지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거대담론으로의 탈냉전, 냉전, 그리고 동아시아의 정치상황은 이들의 일상에서 음식, 언어, 생활양식, 교육, 가족 등으로 표출되고, 이들은 일상의 매 순간 나름의 방식으로 이를 받아들이거나, 혹은 저항하기도 하고, 때로는 타협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이들의 이주-정착의 일상세계는 탈냉전과 냉전의 균열이 포착되는 공간이자, 행위자와 사회구조의 끊임없는 관계의 장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이주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다소 유다른 이주 동기와 경로, 정착의 경험과 과정을 연구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어왔다. 하지만 서구의 이주연구 흐름에 기댄 연구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특수한 이주-정착의 경험을 포착하기가 쉽지 않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례나 현상과와 중심의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을 일상 층위에서 연구하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서구의 이주연구의 패러다임을 지역적 상황에 맞게 맥락화할 것을 주장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사례를 사회구성론의 틀에서 이주-정착이라는 행위수행과 사회 구조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통해 구조화되고, 이를 통해 이들의 일상체계를 재구성하고, 존재론적 안정감을 구축하게 되는지를 증명하였다. 사회구조가 단순히 행위수행을 제한하거나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행위수행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다음 단계의 행위수행에서의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사회구성론적 접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의 과정을 일상의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는 사회학적 틀임을 보여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이주-정착의 과정이 위험하고 이로 인해 이들이 쉽게 자신들의 경험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과 이주-정착은 일상에서 확인되고 경험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인류학적 연구방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인류학적 방법과 심층인터뷰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이주와 정착을 연구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 대상 접근이 녹록하지 않다는 점을 차치하고서도, 언어의 차이로 인한 오해, 타인을 경계하는 태도, 수많은 인터뷰와 설문조사의 경험으로 인한 왜곡된 답변 가능성까지 그 어려움은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렵다. 게다가 인류학적 방법론(특히 참여관찰)과 심층인터뷰는 오랫동안 실증주의적 시각이 주도하였던 사회학에서 객관성의 결여라는 이유에서 널리 사용되지 않았는데 인터뷰라는 방법이 갖는 '즉흥적 서사' 및 답변은 인터뷰 상황과 인터뷰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오랫동안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실재 작동과 개

인의 삶의 경험을 인터뷰이의 의미 체계 내에서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소수자의 삶을 이해하는 데 최근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유의할 점은 인터뷰에서 설명되는 인터뷰이의 경험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주관적인 해석이고, 과거 경험에 대한 언급의 경우 ‘현재’ 관점에서 수 없이 많은 생애시간을 통해 체험 것들 중 ‘어떤 내용’을 특별히 기억하여 ‘특정한 형식’을 통해 ‘(재)해석해 소개’ 한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이희영 2011, 220). 또한 연구 결과가 미시적인 관점에 갇혀 사변적인 이야기나 지엽적인 문제의 나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의 복잡성에 바탕을 둔 이론적/분석적 틀의 구축이 중요하다(이희영 2011; 포이케르트 2003). 다시 말해 사회구성론의 틀에서 인류학적 접근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이주와 정착의 경험을 행위수행과 구조의 변증법적 관계로 포착해내려는 본 논문의 시도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주집단이 의미화 되는 지역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면서도 일상세계의 경험을 사회구조와의 관계성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도일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곽해룡(2005).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문제 (사례와 지원방안)』. 서울 : 한국학술정보.
- 김윤영(2002). “탈북 아동들의 남한 학교생활과 정체성.” 한양대학교 대학원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인성(2005). “탈북자 현황분석 : 탈북, 중간기착, 정착까지의 전과정의 총체적 분석.” 『민족연구』. 제14권, pp. 6-34.
- 노귀남(2011) “여성의 공간경험 확장과 의식 변화.” 조정아 외. 『북한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서울 : 통일연구원.
- 박영희(2011). 『만주의 아이들』. 서울 : 문학동네.
- 박윤숙·윤인진(2007). “탈북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과의 관계.” 『한국사회학』. 제41집. 제1호, pp. 124-155.
- 안중수(2010). “북한시장화와 주민생활에서의 변화.” 『북한주민의 생활변화와 남북소통이길』. 2010 만해축전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 앤쏘니 기든스(1998). 『사회구성론』. 서울 : 저작아카데미.
- 양현아(2001). “증언과 역사쓰기-한국인 ‘군 위안부’의 주체성 재현.” 『사회와 역사』. 제 60권, pp. 60-96.
- 엄태완(2010). 『탈북난민의 위기적 경험과 위상』. 서울 : 경남대학교 출판부.
- 윤인진(2009). 『북한이주민』. 서울:집문당.
- 윤택림·함한희(2005). “남북한 여성 생활문화의 이해 : 집안일과 육아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17집. 제2호, pp. 3-32.

- 이금순·윤여상(20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과 처벌실태.” 『통일문제연구』. 제18권. 제1호, pp. 217-252.
- 이용호(2002). “난민의 개념과 보호.” 『국제법학회논문』. 제52권. 제2호, pp. 311-338.
- 이철우(2010). “북한주민에 대한 이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북한이탈주민 서비스 전문 인력양성 기초교육』. 서울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이철우(2011). “북한주민에 대한 이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북한이탈주민 서비스 전문 인력양성 기초교육』. 서울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이희영(2010). “새로운 시민의 참여와 인정투쟁.” 『한국사회학』. 제44집. 제1호, pp. 207-241.
- 이희영(2011). “북한 일상생활 연구자료 생성과 해석 : 구술자료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in 박순성, 홍민 엮음. 『외침과 속삭임: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서울 : 한울.
- 임채완·최영관(2000). “중국내 탈북자의 ‘난민적’ 상황과 그 대책: 연변자치주지역 조사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36호, pp. 121-151.
- 장명선·이애란(2010). “북한이탈주민여성의 취업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연구.” 『통일문제 연구』. 제54호, pp. 275-319.
- 전우택 외(2010). 『통일 실험 : 그 7년』. 서울 : 한울.
- 정주신(2009). 『탈북자 문제의 인식1 & 2』. 서울 : 프리마.
- 정주신(2005).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정착을 위한 사회화 과정 일 고찰.” 『통일전략』. 제5권. 제2호, pp. 229-257.
- 정천구(2006). “조선족, 탈북자 그리고 한중관계.” 『통일전략』. 제6권. 제1호, pp. 189-214.
- 좋은 벗들(1999).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 중국 동북부 지역 2,479개 마을 북한 ‘식량 난민’ 실태조사』. 서울 : 정도출판.
- 포이케르트(2003). 『나치시대의 일상사 : 순응, 저항, 인종주의』. 김학이 역. 서울 : 개마고원.
- 한국정신대연구소·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1999).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3』. 서울 : 한울.
- Berger(1995). “Agency, Structure, and Jewish Survival of the Holocaust: A Life History Study.” *The Sociological Quarterly*. Vol. 36. No. 1, pp. 15-36.
- Bourdieu, P. (1977).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Cambridge:CUP.
- Bourdieu, P. (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ment of Taste*. London:Routledge.
- Ehmer, J.(1998). “Migration and Population in German Historical Thought.” Bommers and Morawska(eds.). *International Migration Research: Constructions, Omissions and the Promises of Interdisciplinarity*. England:Ashgate.
- Healey(2006). “Asylum-Seekers and Refugees: A Structuration Theory Analysis of

- Their Experiences in the UK.” *Population, Space and Place*. Vol. 12, pp. 257–271.
- Ignatiev, N.(1995). *How the Irish Became White*. New York:Routledge.
- Kivisto, P.(2002). *Multiculturalism in a Global Society*. Malden:Blackwell Publishing.
- Marschalck, P.(1987). “The Age of Demographic Transition: Mortality and Fertility.” Bade(ed.). *Population Labour and Migration: 19<sup>th</sup> and 20<sup>th</sup> Century Germany*. London:Berg Publisher.
- Morawska, E.(1990). “The Sociology and Historiography of Immigration.” V. Yans–McLaughlin(ed.). *Immigration Reconsidered: History, Sociology and Politics*. New York:Oxford University Press.
- Morawska, E.(2003). “Immigrant Transnationalism and Assimilation: A Variety of Combinations and a Theoretical Model They Suggests.” Joppke and Morawska(eds.). *Toward Assimilation and Citizenship*. London:Palgrave.
- Ritzer, G.(2000). *Modern Sociological Theory* (5th edition). USA:McGraw–Hill Higher Education.
- Roediger, D.(1991). *The Wages of Whiteness: Race and the Making of the American Working Class*. New York:Verso.
- Rystad, G.(1992). “Immigration History and the Future of International 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26. No. 4, pp. 1168–1199.
- Schmitter Heisler, B.(2000). “The Sociology of Immigration.” Brettell and Hollifield(eds.). *Migration Theory: Talking Across Disciplines*. New York:Routledge.
- Stones, R.(2005). *Structuration Theory*. Basingstoke:Palgrave.
- Urry, J.(1991). “Time and Space in Giddens’ social theory.” C.G.A. Bryant and D. Jary(eds.). *Giddens’ Theory of Structuration: A Critical Appreciation*. London:Routledge.
- Zhou, Min(1997). “Segmented Assimilation: Issue, Controversies, and Recent Research on the New Second Gene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1. No. 4, pp. 975–1008.

Abstract

# A Critical Approach to Migration Studies Research Paradigm

## Research on Everyday Life of North Korean Refugee

Sung Kyung Kim\*

The trend of western migration studies in recent years is to find out not only reasons and process of migration, but also the mechanism of complex interactions between races, ethnicities, cultures, economics, politics and etc. in the processes of migration and settlement. This article aims to critically evaluate the major trends of western migration studies, and then proposes the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framework for researching a North Korean refugee in the level of everyday life. In particular, this article suggests structuration theory, theorized the multifaceted relationships between agency and structure, and ethnographic method for appropriately approaching the issue of North Korean refugee in the process of migration and settlement. By applying the framework of structuration theory, we could understand how the social structures and cultural resources of North Korea society enable North Korean refugees to migrate (or to escape) to South Korea. In addition, this approach provides advantage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agency and structure in the experience of North Korean refugee in the process of migration/settlement and the process of structuration corresponded to the agency of North Korean refugee within South Korean society. Furthermore, in terms of methodology, this paper suggests the merits of ethnographic method in order to research the relationship between agency and structure in the case of North Korean refugee as it would provide a chance for researcher to build up rapport with North Korean refugee and then be able to conduct a fieldwork (i.e. participant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 to grasp their complex experiences of migration/settlement.

■ 논문투고일 : 2011년 11월 13일, 논문심사일 : 2011년 12월01일, 게재확정일 : 2012년12월16일

\* HK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Sungkonghoe University.